



[금융]
신한금융
혁신성장 플랫폼
'이노톡' 오픈
05



Economy

↑ 코스피 2063.05 (+13.12) ↓ 코스닥 621.76 (-5.17)
→ 금리 (국고채 3년) 1.30 (0.00) ↓ 환율 (원·달러) 1196.20 (-3.70) (9.30)

74조 몰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커트라인 2억원대… 지방이 유리

<주택가격>

부부소득 5000만원 이하 57%
대환 신청액 1억원 이하 50%
은행, 고정금리 대출 3.2%p↑
20년간 3300억 부채감축 기대

20조원 한도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하 안심대출)에 무려 74조원이 몰렸다.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값 커트라인은 2억원 선일 것으로 추정됐다.

요건 미비자 등이 없는 보수적인 집값 커트라인은 2억1000만원을 가정하면 신청자 중 수도권에서 46%, 비수도권에서 54%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신청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충남과 경남 지역에서 신청 대비 혜택자의 비율이 높았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대출은 지난 16일 이후 2주간 약 63만5000건, 73조9000억원이 접수됐다.

24시간 운영되고 0.1%포인트

<신청자 주택가격분포> (단위: 건, 조원)

구분	건수	건수비중	건수누적	금액	금액비중	금액누적
1억원 이하	51,097	8.10%	8.10%	2.4	3.30%	3.30%
1~2억원	198,321	31.20%	39.30%	15.8	21.40%	24.70%
2~3억원	179,233	28.20%	67.50%	20.9	28.30%	53.00%
3~6억원	174,838	27.60%	95.10%	28.2	38.10%	91.10%
6억원 이상	31,386	4.90%	100.00%	6.6	8.90%	100.00%
계	634,875	100.00%	-	73.9	100.00%	-

/금융위

의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 신청건의 88%를 차지했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8000만원이다. 당초 주택 가격 기준기를 9억원 이하로 설정해 서민형인지 논란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를 차지했으며, 3억원 이하가 67.5%였다.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이다.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를 차지했다.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600

만원이다.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 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은 2억1000만원에서 2억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 2억1000만원이다.

만약 자격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0% 발생할 경우 주택 가격 상한은 신청자 평

균치인 2억8000억원까지 올라간다. 지난 2015년 안심대출 신청자 중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등 비율은 약 15%였다. 이번 안심대출의 요건이 까다롭고,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 자격미비·포기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지원 상한으로 가정하면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1억5000만원이다.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 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안심대출로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작년 45.0%에서 약 3.2%포인트 상승해 올해 고정금리 목표치 48%를 달성할 것”이라며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3면에 계속>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19 제약·바이오 포럼'

다시 바이오-혁신의 파이프라인

K-바이오가 추락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로 기대를 모았던 모았던 토종 바이오 기업들이 연이어 글로벌 임상 3상 실패를 발표한 탓이다.

코오롱티슈진 '인보사'가 주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며 품목 허가 취소를 받은 후, 신라젠의 펙사베에 이어 헬릭스미스가 개발중이던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엔젤페스' 까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은 커졌다. 바이오라면 무조건 추종하던 투자심리도 바이오라면 무조건 기피하는 '바이오 포비아'로 차갑게 돌아섰다.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한국 바이오 산업도 동력을 잃을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잃기엔 이르다. 정부는 혁신 바이오의 약품의 신속 허가를 위한 '첨단바이오법'을 통과시키고, 바이오를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연간 4조원을 투입하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내에는 여전히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존재하다. 이들은 산업의 부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연구와 투자로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해가고 있다. 실제 없이 부풀었던 거품이 사라지고 나면, 이러한 진짜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2019 제약·바이오 포럼'을 통해 바이오 산업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토종 바이오 벤처들이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 : 다시 바이오-혁신의 파이프라인

◆일시 : 10월 24일(목) 오전 9시~12시

◆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페럼홀(3층)

◆주최 : 메트로경제

◆등록 :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당일 카드결제 가능)

◆문의 : (02)721-9826 또는 forum@metroseoul.co.kr

metro



“국군 장병 응원합니다”

국방부가 30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10월 한 달간 국군장병을 응원하기 위한 '국군응원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교통공 '고용세습' 사실로… “사장 해임 조치”

감사원

5개 공기관 정규직 전환 감사
3048명 중 333명이 친인척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2월 3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총 31건을 감사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한 관련자 등 72명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

다. 그 중 29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하고 통보했다. <관련기사 L7면>

감사를 받은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다. 감사원은 이들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333명(10.9%)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

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여기에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10년간 전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19.1%(246명)에 달한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기존 직원의 추천을 받은 친인척 45명을 면접 등 간이 절차만 거쳐 기간제로 채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한 52개 협력사 직원 3604명 중에서도 비공개 채용되거나 서류·면접 심사 표

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 채용 사례도 3000건 이상(중복 사례 포함)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재직자의 청탁으로 채용된 친인척 등 비정규직 5명을 모두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전KPS주식회사는 채용 공고 없이 임직원의 청탁으로 자녀를 단독 면접을 통해 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80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을 지난해 4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3면에 계속>

/손현경 기자 son89@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92만6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연금월액(특례·분할 제외)은 92만6000원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금액인 52만3000원보다 많았다.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10만

8000원이다.

10~20년 미만 가입자는 209만7000명(53.8%)으로 5년 전보다 56.5% 증가했다. 반면 10년 미만 가입자는 120만4000명(30.9%)으로 10.5% 감소했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132만명(33.8%)으로 지난해보다 6.7%(8만명) 늘었고 2014년 보다 43.8%(40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수급자는 27.0% 늘었다. 국민연금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후준비 인식이 확산한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김희주 기자 hj89@